# 믿음과 인내로 호랑이 본성 깨우다

## ‘명가재건’ 이끈 조범현 감독의 리더십

고뇌의 2년을 보내며 정규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4일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2년만의 우승 도전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한 조범현 감독은 김응용 현 삼성 라이온즈 사장에 이어 타이거즈의 두 번째 우승 감독이 됐다.

### 전통명가 맡아 속앓이…감독 2년만에 정상 되찾아

**■ 미래를 선택한 ‘이방인’**

“멋진 명승부로 타이거즈의 명가재건을 위해 노력 하겠다.” (10월15일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명가재건’은 조범현 감독이 늘 강조하던 목표이자 숙명 같은 숙제였다. 타이거즈의 강인한 역사와 전통은 조 감독에게는 항상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옛 타이거즈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팬들에게 OB와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경상도 사나이 조범현은 ‘이방인’이었다.

그가 처음 접한 타이거즈의 모습은 팬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의 대기일 뿐이었다. 팬들의 눈높이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조범현 감독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스승 김성근 감독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조범현 감독은 미래를 선택했다. 미숙한 젊은 선수들을 가다듬는데 주력하느라 부임 첫해 6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구단 홈페이지에는 사퇴 릴레이까지 벌어질 정도로 조범현 감독은 타이거즈의 역사와 전통속에서 속앓이를 했다. 사퇴논란 속에 2009년 KIA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올 시즌도 순탄치만은 안았다.

초반 부진 속에서도 조 감독은 ‘6선발’ 체제를 고수하며 눈앞의 성적보다 미래의 발전을 꾀했다. 부임과 함께 강조했던 기본기와 체력이 시즌이 무르익어갈수록 KIA의 저력으로 자리 잡아갔고, 지난 8월2일 마침내 2천516일만에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현실 대신 ‘미래’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던 조범현 감독은 2년만에 ‘명가재건’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다.

### 끝까지 믿어준 나지완 7차전 끝내기 홈런으로 보답

**■ 믿음과 인내의 2년**

“나지완을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다.” (10월 17일 한국시리즈 2차전 종료 후)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조범현 감독은 나지완을 3번타자로 선발 출장시켰다. 나지완의 성적은 3타수 무안타. 첫 타석 삼진을 기록한 나지완은 4타석에서 모두 침묵했다. 팀은 3번 타자의 부진속에 2-1로 신승을 거뒀다.

2차전 경기가 끝난 후 조 감독은 ‘6회 무사 1·2루의 나지완 타석 때 대타

를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최근 컨디션도 좋았고, 본인에게 큰 경험이 됐을 것”이다며 나지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이후 나지완은 4·5·6차전에서 지명타자로 자리를 지켰지만 3번 타자 다운 매서운 타격을 보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조 감독의 믿음은 결국 7차전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돌아왔다.

안치홍, 양현종, 곽정철, 손영민 등 올 시즌 KIA의 한 해를 이끈 젊은 선수들은 조 감독의 믿음과 인내 속에서 자란 KIA의 보석들이다.

### 열정 감춘 미소로 선수들에 자신감 불어넣어

**■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주의 기운이 KIA를 감싸고 있다.” (10월22일 한국시리즈 3차전을 앞두고)

조범현 감독은 우승이 확정된 뒤 “김성근 감독님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진 분이라서 쉽지 않은 대결이었다”면서 한국시리즈 긴장의 순간을 토로했다.

하지만 피말리는 7차전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도 조범현 감독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적지에서 2연패를 당했을 때도, 최후의 승부를 앞뒀을 때도 애써 여유를 보였다. ‘우주의 기운이 감싸고 있다. 어떤 실수를 해도 이기게 되어있다’는 종교 지도자 같은 엉뚱한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령탑을

맡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팀, 그리고 오랜 스승이 지휘하는 SK와의 한국시리즈에서 조범현 감독의 미소는 하나의 작전이었다. SK는 다양한 경우의 수로 KIA 선수단을 뒤흔들었다.

경험이 적고,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KIA가 자칫 분위기에 휘말릴 수도 있었지만 조범현 감독은 미소와 여유로 덕아웃 분위기를 주도했다.

지난해 뒷심부족으로 승리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KIA는 올 시즌 끈질긴 승부로 정규시즌 1위를 달성했다. 팬들 사이에는 ‘약속의 8회’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8회 이후 점수를 뽑은 경기는 5번. 승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수들은 멀게 느껴지던 7차전 1-5의 승부를 뒤집고 우승 샴페인을 터트릴 수 있었다.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승부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2년의 성과는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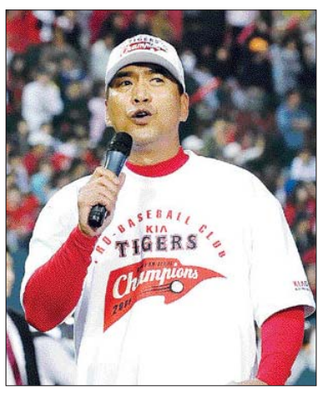
### 이종범 등 노장들 통해 ‘신구조화’ 팀 하나로 묶어

**■ 팀워크 끌어낸 지혜**

“이종범의 희생이 팀을 바꿔놓았다.”(2009 시즌 중)

승부의 분수령이 됐던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에 노장 이종범이 있었다.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안은 나지완은 KIA 우승의 힘을 묻는 질문에 “감독님께서 항상 팀워크를 강조하셨고, 최고참 이종범 선배의 솔선수범과 주장 김상훈 선배의 리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범현 감독은 올 시즌 미야자키 전지훈련 당시 이종범에게 직접 펑고를 쳐주며 훈련을 지휘했었다. 은퇴 논란에 휘말렸던 노장 이종범의 명예



회복을 위한 채찍질이자 선배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모습이었다.

올 시즌 주장으로 임명한 김상훈에게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장의 무거운 책임을 안겨준 조범현 감독의 심정은 ‘팀을 하나로 묶고 싶다’는 것이었다.

노장의 희생을 강조했던 조범현 감독은 노장에 대한 존중도 잊지 않았다. 올 시즌 우승의 공을 ‘이종범의 희생’으로 돌렸던 조범현 감독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 채 이대진에게 통산 100승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팀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노장에서 찾은 조범현 감독의 선택이 ‘신구조화’ 속에 한 층 강해진 KIA를 만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